

# 동서 철학 매개의 미래

조가경(뉴욕 주립대학교 / 버팔로)

## I. 문제 제시

일방적 수용에 치우쳤던 우리의 서양 철학 연구는 오늘로서 거의 한 세기를 획하게 되었다.

동양은 서양에서 꼭 필요한 많은 것을 배웠으나 서양은 비례적으로 절실하게 동양에서 배울 만한 것을 찾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서양이 동양사상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에 앞서 우리 스스로가 얼마 만큼 동양의 고유한 사상에서 영속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며, 또 우리가 서양사상 수용에 있어서 과연 주체적인 가치 선택의 기준을 보유하고 그것을 행사하고 왔는가 하는 점이다.

만일 오늘날 철학하는 한국인의 입장에서 새로운 역사의식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좀더 우리 자신을 알고 동시에 자아와 타자(他者)의 구별에 입각한 대화의 상호이해의 가능성을 열기 위한 것이라야 한다.

## II. 매개의 개념

동양이 서양을 지금처럼 추종하는 데서 진정한 매개는 있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서양을 배척하고 일종의 복고주의를 꾀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자기 것만 지키려는 자는 자신마저 잃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이 본래 사회적이고 언제나 상호 주관적으로 형성되는 도상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개의 보편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 형성의 과정이 다 바람직한 매개의 과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 예로서 정복자의 의사를 강요당하는 문화식민주의의 경우나 과거를 숭상하여 그 보존에 급급한 문화 보수주의적 학문의 전통을 예로 들 수 있다. 과거를 연구하되 그것이 현대를 더 충실히 살기 위해서라면 그것이야말로 과거와 현대를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길이라 할 것이고, 서양에서 배우되 이로 인하여 동양의 가치와 특색이 사라지고 만다면 그것은 소극적인 매개라고 할 수 밖에 없다.

## III. 매개의 방법론

(1) 고유한 전통문화 가운데 매몰되거나 망각된 부분을 되살리는 과제는 역사적 매개의 부류에 속하며, (2) 외래 사상과 자신의 현대적 의식과의 절충은 상호문화적 매개의 부류에 속한다. 서구 문명에서는 이 두 가지가 대체로 연속적, 자주적으로 수행되어 왔다고 하겠으나 동양의 경우, 특히 19세기 이래로 심한 충격과 단절을 동반하였다.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스스로 도태(淘汰)된 사상을 일일이 부활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외부적인 알력으로 직접, 간접으로 자취를 감춘 제도와 사상에 대해서는 (ㄱ) 문헌을 통한 연구와 (ㄴ) 일상적인 생활의 의식구조를 심층(深層) 분석함으로써 이를 재구성하고 이론화할 수 있다. 그 방법은 <민속(民俗) 방법론> (ethnomethodology)을 바탕으로 한다. 민속 방법론은 Harold Garfinkel에 의해서 1960년대에 제시되었으며 현상학의 사회과학적 장점을 경험론적으로 연장시킨 접근방식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역사적 매개를 대폭으로 필요로 하므로 문헌 해석을 위한 해석학적 방법을 절충시켜야 한다.

민속 방법론의 특징은 한 마디로 고전의 이상화된 권위를 격하시켜서 고전에서 확립된 기본 개념들을 다만 가설적이고 항상 수정 가능한, 임시 타당적인 패턴(pattern)으로서만 허용하려는 것이다. 그런 규범화된 개념들은 일상생활에서 통용되는 언설과 행위의 빈도(frequency)의 통용성(currency)에 의하여 통제되며 그 객관적인 의미를 밝혀 주는 보조수단의 역할을 한다.

#### IV. 연구의 대상

한국 사상의 전설, 속담에서 고차적인 문학과 종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적인 문서나 기록은 민속 방법론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하차원의 단계에서 우리의 일상적 생활 가운데 몸에 배인 언동, 습관, 취향 등도 생활세계의 심층구조의 지수(index)로 간주되며 이 모든 것이 <의식의 고고학>적 분석의 대상이 된다.

동서의 여러 기성 이론과 체계의 틀을 일단 보류하고 가급적 자아동일성이 보장되는 생활공간에서 나타나는 언설과 행위를 현상 자체로서 받아들이고, 이것을 그 내부에 의미가 담긴 표현으로서 점진(漸進)적으로 (progressive) 이론화한다. 이론의 틀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점차 확대되는 개별적 표현을 종합, 조직하여 그 의미를 일반화시키는 것이다. (예 : 한국인의 수치의 감정)

#### V. 동서 철학 매개의 함축성

동양 고전 사상의 핵심은 우주론, 유기론, 그리고 자연 내재 윤리를 낳은 중국사상에 있다고 본다. 생태학적 위기에 당면한 오늘의 세계가 동양사상을 재평가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고 하나 그러기 이전에 동양은 서양에 대한 <타자>로서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난 세계관의 표본이기도 하다.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획일적인 서구의 합리주의와는 다른 비-인간중심주의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길이 될 것이다.